나주시, 배꽃 개화기 저온·서리 피해 예방 총력

기후변화 영향 10일이면 만개
열풍·살수장치 사전점검
톱밥·고형연료 활용 연소법 준비

나주의 한 과원에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 인공수분(受粉)을 하는 인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나주시 제공〉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배꽃 개화기에 반복되는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대비 당부와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배꽃은 평년 기준 4월 중순께 개화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올해는 오는 10일이면 대부분 만개할 것으로 예상돼 저온·서리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화기 저온피해는 영하권 온도에서 발생한다. 배꽃 만개시기에 '영하 1.7도' 환경에 30여분만 노출돼도 꽃의 씨방이 검게 변하면서 고사한다.

특히 열매가 맺혀도 기형과, 생리장해가 발생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농가에 피해를 안겨 준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개화기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선 방상휀(열풍)과 포그식 미세 살수장치를 사전 점검하고, 해당 장치가 없는 경우는 톱밥·액화·고형연료 등을 활용한 연소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아가 시작되면 과원 로터리 작업을 통해 낮 동안 지면에 골고루 태양열을 흡수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매년 저온·서리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안전한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인공수분 횟수를 높여 결실량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나주배 주품종인 '신고'의 수분수로는 꽃가루가 풍부한 추황·슈퍼골드·창조·만황 품종이 있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열매를 솎는 적과시기를 늦추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세가 약한 나무는 수세회복을 위해 비료를 살포해야 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일부터 15일까지 배꽃 만개기 전후인 10일 간 서리·저온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한다.

해당 기간에는 기상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서리 대비 안내 문자 발송 등 농가별 사후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각 농가에서는 개화기 기상 정보에 관심을 갖고 수시예찰을 통한 저온 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함평군, 협업포인트제 강화

함평군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협업포인트제' 운영을 강화한다.

협업포인트제는 공무원이 타 부서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등 협업한 경우 직원 간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분기별 실적 공유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협업포인트제를 도입한 지난 한해 전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360여명이 이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조직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열대과일 여왕 애플망고 수확 한창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 강진읍 애플망고 재배 하우스에서 열대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이다. 가을에 저온처리를 통해 기존 수확시기보다 3개월을 앞당긴 강진 애플망고는 조기 수확의 기술만큼이나 가격도 5~6개가 들어가는 3㎏ 한 상자에 2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선비의 예악과 풍류를 만난다
대동문화재단·화순향교
10월까지 '향교문화체험'

선비들의 예악과 풍류를 만날 수 있는 '향교문화체험'이 화순향교에서 펼쳐진다.

대동문화재단과 화순향교는 8일부터 10월까지 '2022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지락(鄕校知樂)'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비들의 일상 생활을 간접경험할 수 있는 이번 체험은 8일 '유유자적 선비의 일상'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글과 그림을 통해 선비들의 예악과 풍류를 만나볼 수 있다.

또 '봉심카페'에서는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문화강좌', 유생을 체험 할 수 있는 '천방지축 유생의 하루' 등이 진행된다.

이 중 '천방지축 유생의 하루'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인형극, '드론 활용 나만의 향교 작품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5월부터 10월에는 소리 내어 책을 읽는 '낭독극장', 예절에 대해 깊게 공부하는 '가례다례', 붓과 먹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교동글방', 화순향교의 독립출판물을 만들 수 있는 '북클래스'가 매주 진행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축협, 직원 공금 횡령 의혹 진상 조사
의혹 사실땐 경찰 수사 의뢰

장흥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원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가 펼쳐진다.

장흥축협은 소고기 유통 관련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상당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도축 한우의 유통 과정에서 재고 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의혹은 관련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축협은 전했다.

A씨는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액 4억9820만원 전액을 반납했으며, 개인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축협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A씨를 대기 발령 처리한다.

장흥축협은 이날 오전부터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축협중앙회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장흥축협 관계자는 "정확한 횡령 규모는 조사·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감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주민 주도 '축령산 편백숲 여행코스' 개발

장성군 주민들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여행코스 개발에 나섰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조직된 25개의 주민조직체들과 함께 네트워킹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축령산 편백숲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장성편백 마을여행사'의 이용수 대표가 주민 주도 관광 활성화 방안 공유를 시작으로 주민조직체 간 운영할 관광상품을 교류하고 여행코스 개발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조직체는 축령산, 필암서원, 황룡강, 장성호 등 장성의 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먹거리, 체험, 해설사 등을 엮어 테마가 있는 여행코스를 개발해 오는 5월 '장성 황룡강 洪 길동무 꽃길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 선보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용수 대표는 "주민이 주도한 차별화된 여행상품의 개발로 현지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70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축령산 편백숲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조직체 육성,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기획·추진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사업에 참여하는 300여명의 지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벤치마킹,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